



런던에서 다시 만나요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시킨 제29회 베이징올림픽이 24일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광란과 열정'을 주제로 폐막행사를 갖고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다음 올림픽은 2012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고물가·고금리·자산가치 하락 '삼중고'

서민 가계 '벼랑 끝'

장기적인 불황과 고물가로 광주·전남지역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권의 대출 금리 급등 속에 펀드나 부동산 등 자산가치는 되레 '뒤틀림'을 겪는 등 서민 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나 치솟았다. 지난해 상반기 광주·전남 물가상승률이 1.6~2.4%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새 물가 압박이 3배 가량 커진 셈이다. 또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도 1년새 각각 8.0%, 7.6%나 올라 추석을 앞둔 서민 가계를 위협하고 있다.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이 제수용품의 가격 급등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고금리 기조도 서민 가계를 옥죄고 있다. 6월 말 현재 시중은

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6.77%에 달한다. 이는 2006년 6월(5.48%)에 비해 1.29% 상승한 것으로, 1억원당 대출자의 연 이자 부담이 129만원이나 늘었다. 반면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가치는 시장침체와 경기하강 등의 여파로 연일 '곤두박질' 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2.0%, 2.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4.9%)을 감안하면 집값은 되레 떨어질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 부문도 비슷하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22일 1,496.91로 마감돼 1년4개월여 만에 1,500선이 무너졌다. 국내·외 증시 악화로 지수가 지난해 증시 활황 이전까지 후퇴한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한국 금 13, 종합 7위·아시아 2위

'한국 야구 최고의 순간' 쿠바 꺾고 금메달

베이징올림픽 폐막...중국 사상 첫 종합 1위

한국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올림픽 출전 사상 최다인 금메달 13개, 은 10, 동 8개 등 모두 31개의 메달을 획득, 종합순위 7위를 차지하며 8위 일본(금 9개)을 제치고 아시아 2위에 복귀했다. <관련기사 2·3·18·19면> 한국이 '10-10'(금메달 10개 이상으로 종합 10위 이내 성적) 목표를 크

게 웃도는 성적을 거둔 베이징올림픽은 중국이 금메달 51개, 은 21, 동 28개로 모두 100개의 메달을 따내 사상 첫 종합 1위에 오르면서 24일 모든 경기를 마치고 폐막했다.

이날 밤 9시(한국시각)부터 올림픽 주경기장인 '귀자타위장'(國家體育場)에서 7천여 명이 출연한 가운데 열린 폐막식에서는 한국 가수 비, 송구스타 베컴 등이 공연했고 각국 선수단은 석별의 정을 나누며 4년후 영국 런던에서의 재회를 약속했다.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수확한 금메달 13개는 종합 4위를 했던 역대 최고 성적이 1988년 서울 대회와 7위에 올랐던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기록한 12개를 넘어선 역대 최다 수이다. 한국은 베이징올림픽 폐막 하루 전

인 지난 23일 베이징 우커슈야구장에서 열린 야구 결승전에서 선발 류현진의 눈부신 호투와 이승엽의 홈런포를 앞세워 쿠바를 3-2로 힘겹게 물리치고 세계 정상에 올랐다.

또 이날 장흥 출신 차동민(22·한국체대)은 태권도 남자 80kg급 결승에서 알렉산드로스 니콜라이디스(그리스)를 5-4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 한국이 출전한 태권도 네 종목 석권에 화룡점정을 찍었다. 권과 관장 논란 속에 3~4위 결정전으로 밀린 여자 핸드볼은 23일 헝가리를 33-28, 5점 차로 꺾고 값진 동메달을 획득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연출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38·삼성전자)는 24일 열린 경기에서 2시간17분56초로 28위에 그쳤다. 함께 출전한 이명승(29·)은 2시간14분37초로 18위, 김이영(35·대우자동차판매)은 2시간23분57초로 50위를 기록했다.

한국 선수단은 25일 귀국길에 올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세종

국가별 최종 메달 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중국	51	21	28	100
2	미국	36	38	36	110
3	러시아	23	21	28	72
4	영국	19	13	15	47
5	독일	16	10	15	41
6	호주	14	15	17	46
7	대한민국	13	10	8	31
8	일본	9	6	10	25
9	이탈리아	8	10	10	28
10	프랑스	7	16	17	40
...
33	북한	2	1	3	6

문화회관으로 이동해 해단식을 갖는다. 해단식이 끝나면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도보로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이동해 '환영 국민대축제'에 참석할 계획이다.

다음 올림픽인 2012년 대회는 지난 1908년, 1948년에 이어 영국 런던에서 세계 최초로 세번째 열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후진타오 방한

오늘 韓·中 정상회담

후진타오(胡锦涛·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이명박 대통령과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한다.



<관련기사 2·5면> 회담은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으로 나눠 1시간30분 정도 이뤄지며, 단독 회담에서는 북핵 사태 공조 등 대북문제가, 확대 회담에서는 양국간 전략적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따른 구체적 실행 방안과 경제통상분야의 실질적 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촉진, 동북아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이 주요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社告

3개월간 42,195쪽 읽기

'빛고을 독서마라톤' 함께 땀시다

9월 17일까지 참가 신청

산해 각 참가부문에 완주 여부로 입상자를 가립니다.

광주일보사는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범시민 독서운동인 '제3회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빛고을 독서마라톤 대회는 42.195km의 마라톤 경기를 독서에 접목시킨 것으로, 참가자가 읽은 책 1페이지를 1m로 환

부문별 1~3위에게는 광주시 교육감과 광주일보 사장 표창 및 메달, 상금이 수여되며 완주자에게는 완주증서와 기념품이 주어집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진리를 믿고 계신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대상: 광주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 학생 및 광주시민
- 참가신청: 8월 25일~9월 17일
- 대회기간: 9월 18일~12월 18일(3개월)
- 입상자 발표: 2009년 2월 7일(예정)
- 참가부문:
 - ▶개인부문: 5km(5천페이지), 10km(1만페이지), 무한도전(독서챌린지)
 - ▶가족부문(5인 이내): 하프코스(21.097km·2만1천97페이지) 풀코스(42.195km·4만2천195페이지)
 - ▶단체부문(5인 이내): 하프코스(21.097km·2만1천97페이지) 풀코스(42.195km·4만2천195페이지)

*부문별 중복 응시 불가
■접 수: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 홈페이지 (bookmarathon.gen.go.kr) 인터넷 접수

광주일보사·광주시교육청

올림픽장인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ac.kr

새로운 탐사는 남해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파인비치 골프 & 요트 클럽
PINE BEACH GOLF & YACHT CLUB

이벤트 기획
PINE BEACH GOLF & YACHT CLUB